

[철망 울타리 및 문 위치]



* 철망 문은 시건 장치가 없어 상시 개방 하고, 문을 닫아도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어 통행이 가능함.

* 울타리 설치 후, 주오순 쪽에서 경계 목들을 제거하여 통행로 폭 2.6~3M정도 확보하여 차량 통행 문제 없음.

[철망 울타리 설치 목적]

집 앞 차량 통행 시 마당 바깥쪽으로 서행을 유도하여 부모님의 안전한 농사 생활권과 평화 보장을 위함 입니다. 통행의 방해 목적은 절대 없으며, 현재 차량 통행의 상황과 부모님의 피해사례는 아래의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사진 1, 2, 3, 4, 5, 6 참조)

현재 678-1 번지의 소유주(이하 부모님)는 해당 토지에서 40 년 이상 매일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집에서 길이라 주장하며 차량을 이용해 통행하는 곳은 길이 아닌 담으로 되어있는 흙 마당 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님은 농사 준비뿐만이 아니라 수확한 농작물을 다듬고 말리는 등의 농사일과 관련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678-4 번지(이하 옆집)의 종전 거주자와 가족들은 차량으로 마당을 지날 때 천천히 조심하며 다녀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이에 종전 가족들과는 20 여년동안 큰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옆집 주인은 차량의 통행도 너무 빈번하고, 외부 사람들의 방문도 많았습니다. 또 자동차로 마당을 지날 때 너무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당에 널어 말리던 고추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먼지가 쌓여 다시 세척을 해야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식당에 가져다 줄 파를 다듬어 나르던 어머니는 옆집 차량이 거칠고 빠르게 옆을 지나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파를 모두 바닥에 쏟았습니다. 뒷발에 물을 주기 위해 마당에 늘인 호스를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지 않고 빠르게 차로 밟고

지나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마당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다닙니다. 이로 인하여 흙 마당에는 차의 바퀴 자국이 깊게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옆집과 경계가 되는 곳 가까이에 상수도용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흙 마당에 설치된 이 뚜껑은 지금까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옆집 차량이 밟고 지나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변 흙이 파여 나가고 뚜껑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옆집에 서행을 당부하고, 가능한 마당 바깥쪽으로 천천히 통행하며, 맨홀 뚜껑은 밟지 않고 다녀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옆집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당에서 천천히 다녀 달라는 말을 하던 중 옆집 주인의 불손한 태도에 부모님은 화가 나셨고, '우리는 마당에 울타리를 설치 하겠다'는 말을 하셨으며, 이에 옆집 주인도 '설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려고 하나'는 어머니의 물음에는 '날아 다니든, 공중으로 다니든,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거칠게 말하고, 부모님을 나쁜 사람들이라 말하며, 상권이 발달한 인근 지역(부모님의 친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에도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로 소문이 나있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옆집 주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성실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않으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명예로 생각하시던 부모님은 옆집 주인의 말에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도 옆집 주인의 언행에 대한 말을 동네 분들이나 근처 지역의 친구분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녀들과만 상의하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음을 알고도 이사를 왔다'고 말한 옆집 주인의 적절한 해결 방법 제안을 바라며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셨으나, 옆집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부모님은

두 집의 경계 부분에 울타리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옆집 주인은 집을 중개한 부동산 업자를 불렀고, 이 부동산 업자는 부모님에게 거친 협박성 언행을 하며 울타리 설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옆집 주인의 노력은 부모님을 직접 찾아와 상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닌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더더욱 상황을 악화 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진1] 울타리 설치후 통행로



* 철망 울타리 설치 후, 폭 2.6~3.2 미터 정도로 서행하여 자동차 통행 가능.

[사진2] 울타리 설치후 마당 진입로



* 678-4 번지의 종전 거주자는 위의 그림처럼 마당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차량을 서행하여 통행하였음. 하지만 678-4 번지의 종전 거주자가 경계선에 나무를 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가 자라면서 마당 안쪽으로 점점 우회하기 시작했음. 이에 나무 전지작업이 필요함을 종전 거주자에게 이야기함.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를 새로 이사온 옆집 주인에게도 전달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옆집에서 나무를 자르지 않은 시점에서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자 옆집 주인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고 주장함. 현재는 문제가 되었던 나무를 옆집에서 잘라내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함.

[사진3] 울타리 설치후 차량 통행



* 옆집에서 나무를 잘라 차량 통행로 폭을 확보함. 현재 차량 통행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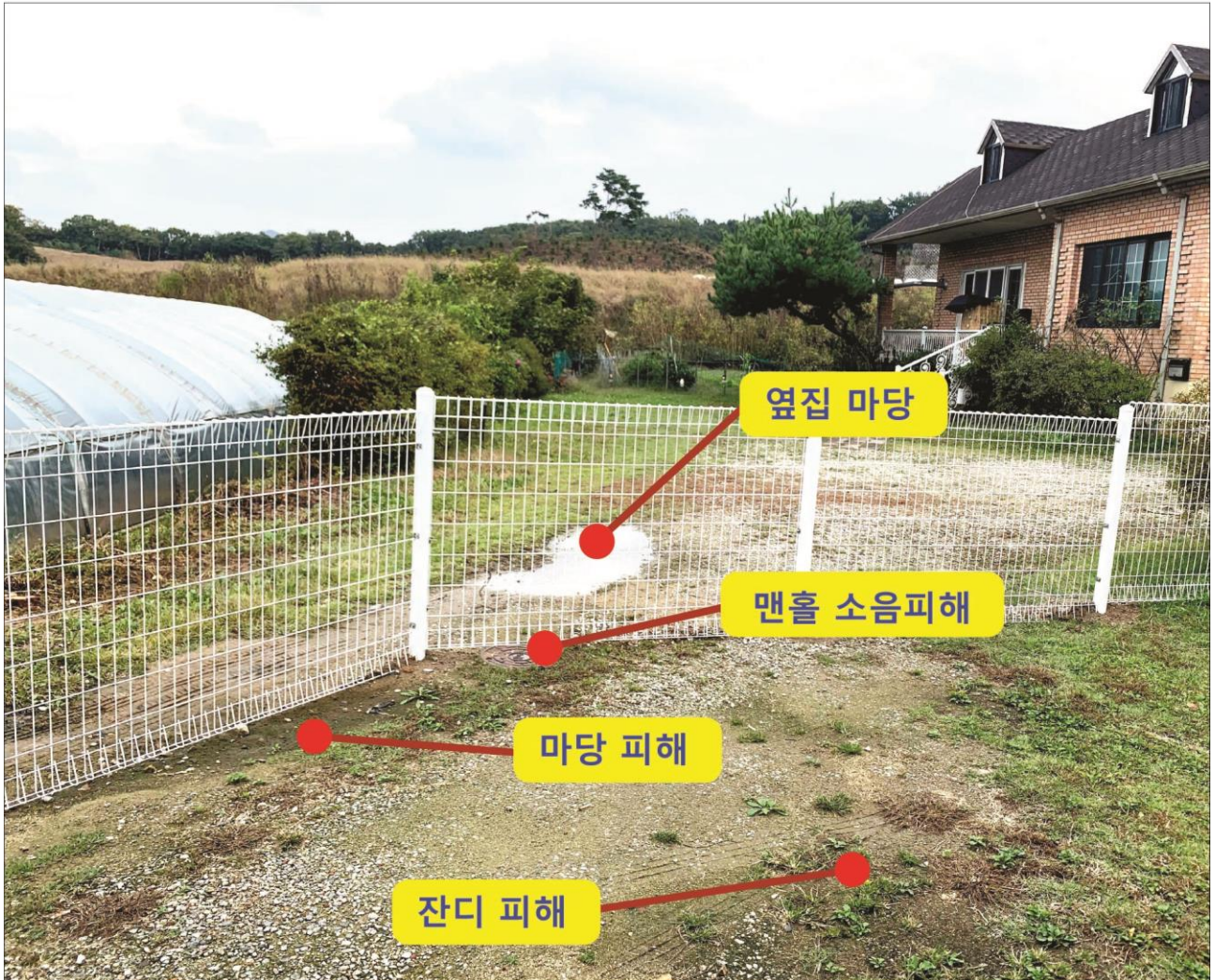
(10 월 1 일 밤에는 119 구급차도 통행하여 다녀감.)

[사진4] 울타리 설치후 맨홀 뚜껑



* 옆집 차량이 밟고 지나다녀 문제가 된 맨홀 뚜껑. 우회 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밟고 다녀 뚜껑 주변 흙 손실과 헐거워져 덜컹거리는 소음 발생.

[사진5] 옆집 거주 통행후 피해 사례



* 사진에서처럼 안쪽 마당으로 우회하면서 맨홀 뚜껑의 소음이 발생 했었고, 마당도 파이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임. 마당 안쪽으로 통행하여 잔디의 훼손도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마당 안쪽으로 통과하여 농작물 관리가 어렵고 먼지가 많이 발생됨.

[사진6] 빈번한 차량 통행후 피해



* 종전 거주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차량 통행함. 이사온 현재 거주자는 통행이 많아 진입로가 파여나가 훼손이 더 심한 상태임. 지금까지는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옆집의 도움 없이 부모님께서 흙이나 자갈로 보수를 하며 지내고 있음.

[진입로 철망 문 설치 이유]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평온한 휴식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보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행을 막기 위함은 아니며, 시공 후 현 상황과 외부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피해사례는 아래의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사진7, 8, 9, 10 참조)

부모님 집과 옆집으로 들어오기에는 약 40~50미터 정도의 부모님 소유 665-4 답으로 된 진입로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들은 많은 차량들이 밤과 낮으로 빈번하게 마당으로 진입하여 차를 돌려 나감에 있어 마당의 훼손, 잔디의 훼손도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도 심하여 설치를 한 것이며, 밤에는 큰 차가 들어와 아주 시끄럽게 돌려 나갈 시에는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 진입한 차량들이 후진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으나 빈번하게 마당까지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는 고물상이나 잡상인들의 출입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철물로 이루어진 농기구나 집기류를 가져가는 일도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집의 주장은 문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나, 그것은 철망 시공 후 업체가 콘크리트로 가설한 철망의 기둥을 굳히는 기간, 즉 최소 3일이 소요가 되므로 공사업체에서 철사로 가볍게 문을 묶어 사용을 금하라고 했던 것 입니다. 우리 또한 3일 동안은 출입을 금하고 옆으로 돌아 다녔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두고 옆집 세대주는 우리에게 문을 막은 이유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길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사진7] 마당 진입로의 철망문 (정면)



* 철망 문은 외부차량들에게 개인 사유지 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공사를 마친 이후는 잠금 장치가 없으며, 옆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적도 없습니다. 고소 내용의 사진은 설치 당일 2021년 9월 18일 사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진8] 마당 진입로의 철망문 (후면)



* 밤에 길을 잘못 알고 들어오는 외부차량에게 공장이 아닌 사유지임을 알리기 위해 문을 닫아 두더라도 잠금 장치가 없으므로 옆집은 열고 들어 오면 됨. 옆집 거주자의 통행에 방해는 되지 않음.

[사진9] 대형차 진입으로 인한 피해



* 길을 잘못들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좁은 집 앞마당 에서 회전하여 나가는 일들이 발생 되면서 주택 베란다의 균열 및 기둥 꺼짐으로 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철망 문을 설치함.

[사진10] 외부차량 진입으로 인한 마당 피해



* 외부 차량들의 집 안쪽까지 진입을 하여 마당의 피해가 발생됨.